
2019년 칠레 시위와 정치적·사회적 파탄: 신자유주의 모델의 정당성 위기와 개헌 합의를 통한 정치적 출구 모색

알베르토 마요¹⁾

칠레산티아고대학교 교수

핵심어: 칠레, 신자유주의, 시위, 사회적 불편함, 정당성 위기

2011년 시위와 2019년 시위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동일한 주기에 발생한 시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는 군부독재정권에서 민선정부로의 정치적 이행 과정에서 모범 사례로 찬사를 받았고 포스트독재 시대 내내 사회적 평화와 제도적 질서에 관한 한 상징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위에서 모두 가장 파탄 양상을 보였다. 2019년 10월 칠레의 일련의 시위들은 거의 30년 동안의 포스트독재 시대에 유례없는 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1980년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모델과 정치 모델에 대해, 담론적 차원을 넘어, 운영체제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1980년 헌법의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칠레 위기가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도무지 대책이 없어 보이는 사회적 불편함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순간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게 하는 일이다.

2011년에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2019년에 시위가 일어난 국가 숫자도 비슷하다. 많은 국가는 2011년과 2019년에 모두 시위를 겪었다. 그리고 칠레는 두 차례 모두 가장 많은 인파가 가두행진과 시위에 참여한 나라다. 또한 칠레는 갈등 기간도 가장 길었고, 가장 명시적으로 당국보다 사회 모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향했다.

대대적인 시위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보통 비교적 긴 주기를 두고 되풀이된다. 가령 1968년에 한 차례 있었고, 이어서 1989년에 있었다. 21년만이었다. 그 뒤에는 2011년에 일어났으니까 22년 만에 일어난 셈이다. 하지만 2011년과 2019년 사이의 간극은 단 8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물어보나마나 사회적 파탄 에너지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 경험의 의미, 권력의 정당성, 운영의 기능성, 정의(기대치와 수용치 사이의 어느 정도의 균형) 사이의 4차 방정식의 해답을 구하기는커녕 적절한 공식을 구하지도 못한 형국이다.

국제 언론의 주기적 보고서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에 입각해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의 시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14개의 시위 추정 원인을 5개로 축소할 수 있다. 자주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요인 하나는 엘리트 집단의 위기와 연관된 것이다. 이 위기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통치자(계급 혹은 계층에 입각한 통치 집단)와 정부의 위기는 보통 정치방식이나 신조의 결함과 관련 있다. 데이터를 간추리기 위해, 우리는 이전에는 굳 건넸던 정부가 위기에 빠져 시위가 일어난 경우만 ‘정부 또는 통치자의 위기 영

1) 칠레산티아고대학교(Universidad de Santiago de Chile) 부교수. 지난 12년 동안 우리 시대의 파열 주기를 분석할 경험과 개념적·이론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불편함 연구를 주도하였다. 2011년 칠레에서 최초의 파탄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불편함을 포착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역'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가 제외되어 해당 국가 숫자는 6개국으로 줄었다.

[표-1] 2018-2019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국가와 그 추정 요인

국가	날짜	동원과 시위 요인				
		경제 요인	사회적· 정치적 권리	권위주의+ 탄압+인권	부패	위기(정부 또는 통치자의 위기)
수단	2018. 12. 19. ~ 2019. 8. 17	1	1	1		
알제리	2019. 10. 1 ~		1		1	
가자지구	2019. 3. 14 ~	1	1			
이집트	2019. 9. 21 ~ 2019. 9. 27	1	1		1	
이라크	2019. 10. 1 ~	1	1	1	1	
레바논	2019. 10. 17 ~	1	1		1	
볼리비아	2019. 10. 21 ~ 2019. 11. 21	1	1	1	1	
칠레	2019. 10. 14 ~	1	1	1		
에콰도르	2019. 10. 3 ~ 2019. 11. 14	1	1			
아이티	2018. 7. 7 ~	1			1	
콜롬비아	2019. 11. 21 ~ 2020. 1. 21	1	1			
베네수엘라	2019. 1. 10 ~	1	1	1	1	
홍콩	2019. 3. 15 ~	1	1	1		
카탈루냐 (스페인)	2019. 10. 14 ~					1
인도네시아	2019. 8. 19. ~ 2019. 9. 23					1

동원과 시위 요인						
국가	날짜	경제 요인	사회적· 정치적 권리	권위주의+ 탄압+인권	부패	위기(정부 또는 통치자의 위기)
인도네시아	2019. 9. 23. ~ 2019. 10. 28				1	1
알바니아	2019. 2. 16 ~			1	1	
프랑스	2018. 11. 17 ~	1	1			
프랑스	2019. 12. 5 ~ 2020. 2. 20		1			
조지아	2019. 6. 2 ~ 2020. 1. 22	1				1
인도	2020. 3. 4 ~ 2020. 3. 14		1			
인도	2019. 12. 18 ~		1			1
이스라엘	2019. 7. 2 ~ 2019. 7. 7			1		
카자흐스탄	2018. 5. 10 ~	1	1	1	1	
몰타	2019. 11. 20 ~ 2020. 3. 11	1	1	1	1	
니카라과	2018. 4. 18 ~	1	1	1	1	
파키스탄	2019. 10. 27 ~ 2019. 11. 13	1		1	1	
몬테네그로	2019. 2. 2 ~ 2019. 9. 30			1	1	
필리핀	2019. 11. 18 ~	1		1	1	
푸에르토리 코	2019. 7. 8 ~ 2019. 8. 12				1	
러시아	2019. 7. 14 ~ 2019. 9. 29	1		1		
세르비아	2019. 11. 30 ~ 2020. 3. 16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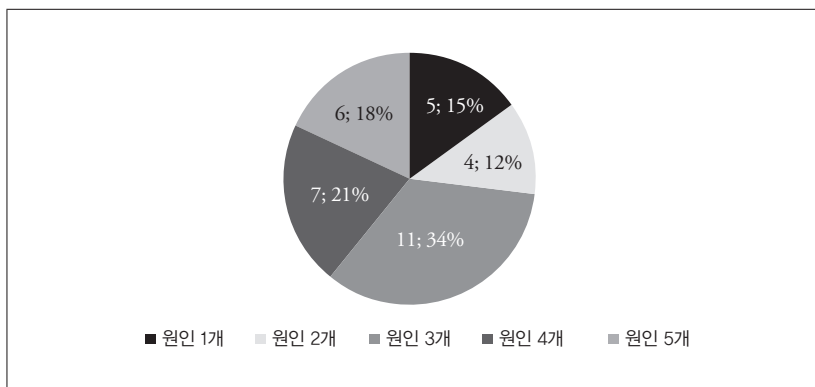
국가	날짜	동원과 시위 요인				
		경제 요인	사회적· 정치적 권리	권위주의+ 탄압+인권	부패	위기(정부 또는 통치자의 위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9. 4. 3 ~ 2019. 4. 21	1	1		1	
우크라이나	2019. 10. 1 ~					1
짐바브웨	2019. 3. 14 ~ 2019. 3. 17	1		1		

출처: 국제 언론 통계를 근거로 자체 작성

개괄적인 통계에 불과하지만 위 표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결론이 도출되고, 다음 도표로 요약될 수 있다. 시위 원인이 국가별로 몇 가지인지 나타내는 도표이다.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이 다중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원인이 두 개인 국가 수(4개국)와 3개인 국가 수(11개국)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여러

〈그림 1〉 2018-2019 시위의 다중 원인



출처: 자체 작성.

*미국과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2020년에 발생한 시위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음.

가지 원인이 ‘각테일’되어 있으면 파탄 가능성이 발생한다. 특히 이 가능성이 경제 요인, 사회적 권리 요인, 정치 요인과 결부되면, 삶의 질 및 그 보장과 관련된 사안들의 정치화가 고조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칠레의 경우, 바로 이 삶의 질 보장이 핵심 변수이다. 각종 국민적 요구의 수렴과 해결책 마련의 통로로서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 등의 공적 기관들이 사회적 삶을 관리하는 능력도 크게 추락했다. 지난 10년 사이 칠레의 정치 시스템은 예전에 비해 역량이 절반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국민의 50% 이상이 항상 공적 기관들을 불신하고 있고,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 기관들에 대한 거부감은 90% 이상에 이른다. 불편함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개념 도식에서, 이는 불편함의 조절자들의 결함을 의미한다. 불편함이 기폭제는 될 수 있어도 원인은 아닌 것이다.

파급력 강했던 2011년과 2019년의 두 사회적 소요의 간극이 아주 짧다는 점은 두 사건이 동일한 주기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가설, 적어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가설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칠레 사례는 이례적으로 흥미롭다. 2011년은 대학입학시험 전형료가 기폭제가 되었다. 이는 교육서비스 소비자들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사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극단적인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긴축 교육서비스의 상징처럼 된 나라에서 강력한 사회적 권리 요구로 이어졌다. 무상교육은 그와 같은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분야들로도 무상 이슈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소위 칠레 모델의 정당성은 붕합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크고 손쓸 수 없는 균열이 생긴 듯했다.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지배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들은 2010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단 1년 사이에 붕괴되었고 현저하게 실효성을 상실했다. 제도를 매우 존중하는 칠레 같은 나라에서 이는 주목해야 할 일이었다.

2011년의 위기는 정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요구사항은 분명했고 핵심 이슈는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시장의 횡포 통제였다. 물론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수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일이었고, 정치권은 기존의 얽혀 있는 실타래를 모두 제거할 의도도 없었다. 그 이후 2012, 2016, 2018년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2019년에 이르렀다. 2016년의 개인연금 항의 시위와 2018년의 페미니즘 운동의 경우 확산 속도(수천 명의 시위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시위로 확산되는 데 걸린 시간)는 놀라울 정도였다. 2011년 시위가 8월의 최대 규모 가두행진에 이르기까지는 4개월이 걸렸는데, 2016년 경우에는 (역시 8월에 최대 규모의 가두행진이 벌어졌다)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8년의 일련의 시위들도 한 달 만에 급속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규모가 7월까지 세 달 동안이나 유지되었다. 또 2019년의 소위 ‘사회적 폭발’은 처음에는 폭발이라고 부를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지만 일주일 만에 대규모 행진으로 비화되었고, 여러 달 동안 수십 차례의 행진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우파 정부는 이를 무마하고자 개헌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시위의 요구사항들은 정치적으로 파악이 가능했고, 2012, 2016, 2018년의 경우도 지역 문제, 연금, 가부장제 등 비록 해결하기 힘든 난제이긴 했지만 요구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2019년 시위는 순전히 그 동력만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2019년의 ‘사회적 폭발’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5% 인상)에 대한 시위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그저 일단의 중고등학생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려가 ‘집단 회피’, 즉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회전식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임승차의례를 거행하였다. 이 같은 항의시위는 거의 2주간이나 계속되지만 커다란 이슈는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0월 16일과 17일 강경해진 정부가 억압 조치들의 수위를 높이면서 암울한 10월 18일로 귀결되었다. 산티아고에서 파괴,

방화, 약탈이 발생하고, 여러 도시로 확대되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피해 액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몇 시간 후 대통령은 전시상태라고 선언하고, 비상사태에서 야간통금으로 조치를 확대하였다. 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단 1주 만에 백만 명 이상의 군중이 산티아고 도심을 행진하고, 이런 유의 행진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포스트독재 시대에 접어든 이래 유례없는 변화(그리고 파탄)의 에너지가 발생하였다. 칠레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이런저런 시위에 참여한 날도 있었다. 상황은 예사롭지 않았다. 불과 열흘 전만해도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격랑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는 “오아시스”라고 일컬었다.²⁾ 이 신기루 오아시스가 2019년 10월 18일을 기해 붕괴한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진행한 일련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높은 가구당 부채(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가구당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에서 28%로 증가하였다)는 아주 낮은 국가부채와 대비되었다. 또 재정흑자 또는 신중한 재정적자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일관된 노력은 전체 가구의 78%가 월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가구예산 조사(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의 결과와 대비되었다. 이 조사에서 할부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 연구는 뒤르캥의 아노미 이론에서 출발하여 여기에 정치화 추이를 가미한 것인데, 칠레는 ‘규범적 불균형’ 상황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규범적 불균형’이란 사회의 운영 체제(의사결정, 관료주의, 물질적·비물질적 생산 혹은 유통)와 이와 관련된 가치평가적·규범적 토대 사이의 불일치를 말한다. 한 사회가 장려하는 가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해 그 사회가 추구하는 운영 체제 사이의 구조적 모순이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균형’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목적은 달성되더라도 문화 기반은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회는 침식된다. 모든 경제적 운영 방식, 모든

2) <https://www.ft.com/content/980ec442-ee91-11e9-ad1e-4367d8281195>

정치적 행위 방식, 모든 절차에는 내적 논리가 있는 법이고, 이 논리가 사회적으로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승인받아야만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는 질서를 사랑하지만, 질서는 너무 많은 것을 다각도로 계속 요구한다. 그 요구들이 서로 간에 일관적이지 못하면, 결국 불일치를 초래되기 마련이다. 규범적 불균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불일치이다. 특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영역에서 이해 불가능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모델의 정당성 위기가 바로 규범적 불균형의 근원이었다.

10월 18일부터 30일간은 격렬한 파탄의 시기였다. 아래 일지에 기록된 사건들은 ‘사회적 폭발’이 얼마나 여파가 컸는지 보여준다. 시위 규모, 경제적 손실 규모, 인권 침해, 세 건의 대규모 국제행사(유엔기후변화회의, APEC, 리베르타도레스컵 결승전) 중단에서 그 여파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폭발은 포괄적 경제 조치와 개헌 합의로 귀결되었다.

일자	사건
10.18 (금)	· 글로리아 후트 교통부 장관이 지하철요금 인하 거부. · 오후에 지하철에서 일련의 소요 발생. 오후 3시에 지하철당국이 1, 2호선 운행중단 발표. 오후 7시에 모든 지하철 서비스 중단. 여러 지하철역에서 항의와 방화. 버스 방화. ·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 경고. · 산티아고 여러 지역에서 냄비시위(냄비 등 주방가구를 두드리면서 벌이는 시위) 발생. · 산티아고 도심의 예넬 빌딩에 방화. 슈퍼마켓 약탈 보도.
10.19 (토)	· 새벽에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푸엔테알토구(區)와 산베르나르도구 외에 산티아고주와 차카부코주에 비상사태 선포. · 300명 이상 체포. · 지하철 당국은 77개 지하철역이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여러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차량에서 시위와 방화 발생). · 산티아고에서 냄비시위와 대규모 시위 발생. 시위의 중심지인 이탈리아광장에 탱크 출동. · 시위가 지방으로 확산. · 피네라 대통령의 지하철요금 인상 철회 발표. 그러나 시위는 계속됨. · 이투리아가 장군이 수도 지역에 통금령(밤 10시에서 아침 7시 사이) 공포. 민주화 이후 최초의 통금령(마지막 통금령은 1987년).

일자	사건
10.20 (일)	•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야간에 “우리는 강력한 적을 상대로 한 전시상태에 처해 있다”고 선언. • 산티아고주에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통금령.
10.21 (월)	• 피네라 대통령의 '전시상태' 선언에 대한 많은 비판. • 하비에르 이투리아가 장군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와도 전쟁 중에 있지 있지 않다”라고 선언. • 통금시간 동안 군의 강경진압에 대한 고발 증가. 쿠리코 시위에서 25세 청년이 군인의 실탄 발사로 사망하는 심각한 사건 발생.
10.22 (화)	• 밤에 피네라 대통령이 자신의 “통찰력 부재” 사과. 연금, 의료, 전기료, 소득 관련 조치들을 담은 사회적 의제 발표.
10.23 (수)	• 약 50만 명가량이 칠레 전국 도시에서 시위.
10.24 (목)	• 후안 안드레스 폰타이네 경제부 장관이 지하철요금 인상과 관련된 한 주 전의 논쟁적 발언, 즉 아침에 보다 일찍 일어난다면 할인 요금의 혜택을 보리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
10.25 (금)	• ‘칠레 최대의 행진’(la marcha más grande de Chile)으로 명명된 시위 개최. 100만 명 이상이 이탈리아광장에 운집하여 평화적 시위를 벌임.
10.26 (토)	• 전국에 걸쳐 시민의회들이 소집되기 시작.
10.27 (일)	• 통금 해제된 첫날 큰 사건 없이 전국에서 다수의 시위가 소집. 정부는 심각한 사건들의 감소 발표. 오후에 피네라 대통령은 자정을 기해 모든 비상사태를 철회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10.28 (월)	• 개각 단행. 8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고 5명이 사직. 내무부 장관 안드레스 채드윅, 경제부 장관 후안 안드레스 폰테이네, 재무부 장관 펠리페 라라인이 사직.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미첼 바첼레트가 진상 조사를 위해 칠레 도착. • 야당 상원의원들 새 헌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공산당 하원의원들은 ‘광역전선’(Frente Amplio)과 함께 대통령 탄핵 예고.
10.30 (수)	• 피네라 대통령 APEC과 유엔기후변화회의의 개최 취소 발표.
11.1 (금)	• 거리에서의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뉴욕 지하철에서 집단 회피 발생. 특히 뉴욕 브루클린 구역 지하철에서 발생.
11.3 (일)	• 자전거 시위대가 라스콘데스구(區)에 위치한 피네라 대통령 자택에 도착.
11.4 (월)	• 11월 4일 사회 각계각층과 산업 부문 총파업을 위해 ‘슈퍼월요일’로 명명된 시위가 전국적으로 소집. 교사노조, 중앙노동조합총연맹, 트럭노조 등이 동참. 산티아고 여러 지역에서 시위대와 진압대가 격렬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민 두 명이 경찰 순찰차에 짓밟히고, 또 다른 한 명이 두개골에 총알이 박히는 등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

일자	사건
11.5 (화)	• 여성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시위과정에서의 성폭행 피해자들과 함께 하리라고 발표. 국가인권기구에 따르면 이미 19건이 발생. • 남미축구연맹이 리베르타도레스컵 결승전을 산티아고에서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11.7 (목)	•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여 약탈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을 포함한 의제 제시. 반(反)복면법에 대한 즉각적인 토의, 변호사 특별팀 구성, 공중감시 증대, 국가정보시스템 현대화 등을 예고.
11.8 (금)	• 제3차 대행진
11.12 (화)	• 피네라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퇴직한 모든 우수 경찰들을 치안경찰대(Carabineros de Chile)와 경찰수사대(PD)에 합류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고 발표. 시위 지역이 늘어남에 따른 부족한 경찰력 보강 차원의 조치.
11.13 (수)	• 치안경찰대 총장 마리오 로사스가 일단의 경찰에게 ‘사회적 폭발’ 기간 중 인권 유린으로 고발되더라도 아무도 면직시키지 않으리라고 확인하는 음성 녹음이 돌기 시작.
11.14 (목)	• 가수 몬 라페르테가 라틴 그래미상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알몸 상반신을 드러내 보이며 경찰의 탄압을 고발. ‘칠레에서는 고문하고 강간하고 죽인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음. • 공산당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평화와 새 헌법’이라고 명명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산티아고 의사당에서 정오부터 논의를 진행.
11.15 (금)	• 새벽 3시경 의원들이 ‘1차 국민투표, 제한회의 혹은 혼합회의 구성, 새 헌법 비준을 위한 최종 국민투표’를 골자로 한 합의안 발표. 이 합의안은 1980년 헌법의 종식을 위한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짐.
11.17 (일)	• 피네라 대통령이 일부 “공권력 과잉 사용” 사례들이 있었다고 인정. • 피네라 대통령이 11월 15일 합의안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 대통령궁에서 성명 발표. 이미 공표한 기초연금 20% 인상 이상의 노력을 점진적으로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발표. 또한 군과 치안경찰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언급.

격렬한 한 달을 보낸 끝에 개헌 여부와 개헌 작업을 담당할 입법 기관 형식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가 공표되었다. 다만 8년째 거론된 ‘의회’(asamblea)라는 용어의 정치성을 피하기 위해 ‘회의’(convención)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국민투표는 2020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로 2020년 10월로 변경되었다. 헌법 개정은 독재체제 때 통과된 1980년의 정치헌법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이 헌법은 우파 내부의 두 집단, 즉

통화주의자들과 선거 게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을 복원하고자 했던 집단 간의 정치적 합의를 담고 있었다. 전자는 밀턴 프리드먼의 추종자들이었고, 후자는 후견민주주의(*democracia tutelada*) 혹은 카를로스 우네우스의 개념에 따르면 반(半)주권적 민주주의(*democracia semisoberana*)를 지향하는 집단이었다. 1980년 헌법의 주요 작성자인 하이메 구스만의 정치관의 핵심이었던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은 1830년 칠레에서 처음으로 형식을 갖춘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1980년 헌법은 새로운 유형의 기업가들과 칠레의 구 과두계층(예전에는 지주였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칠레의 정치문화적 관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던 계층) 간의 합의가 명문화된 것이다.

아직도 반발이 있지만(국민투표를 중단하고 전지구적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새 경제 국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수많은 요구가 있다), 1980년 정치헌법의 추락 가능성은 세바스티안 피네라 정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CE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겨우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좌파 진영은 사회적 폭발의 근원 중 하나인 피네라의 정치적·경제적 비전뿐만 아니라 유엔,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관련 보고서에 적시된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극우는 그가 너무 빨리 굴복하여 정치헌법을 넘겨줌으로써 우파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피네라는 탄핵을 당할 구체적인 조짐들, 적어도 2020년 3월에는 하야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로 이 흐름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신찬용 옮김

| 참고 문헌 |

- Abbot, Pamela y Claire Wallace (2012). Social quality: a way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153–167.
- Andersson, Jenny y Olivier Godechot. (2018). “Destabilizing orders—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of neoliberalism”. Proceedings from the MaxPo Fifth—Anniversary Conference, París, MaxPo Discussion Paper 18/1, Max Planck Sciences Po Center on Coping with Instability in Market Societies, París, Disponible en: http://www.maxpo.eu/pub/maxpo_dp/maxpodp18-1.pdf
- Authers, John. (2019). Chile’s violence has a worrisome message for the world, [Consulta 17–11–2019]. Disponible en: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nergy/chiles-violence-has-a-worrisome-message-for-the-world/2019/10/22/aa3430b6-f4c8-11e9-b2d2-1f37c9d82dbb_story.html
- Dobry, Michel. (1986). Sociologie des crises politiques, París: Presses de la FNSP.
- Durkheim, Émile. (1982). Las formas elementales de la vida religiosa, Traducido del francés al español por Ramón Ramos, Madrid: Akal.
- Hunneus, Carlos (2014). La Democracia Semisoberana, Chile después de Pinochet, Santiago: Taurus.
- Larrañaga, Osvaldo. (2001). Distribución de ingresos en Chile: 1958–2001, Documento de Trabajo n.º 178, Facultad de Economía y Negocios, Universidad de Chile, [Consulta 05–11–2019]. Disponible en: <http://repositorio.uchile.cl/handle/2250/144784>
- Mauss, Marcel. (2009). Ensayo sobre el don: forma y función del intercambio en las sociedades arcaicas, Traducido del francés al español por Julia Bucci, Buenos Aires: Katz.
- Mayol Miranda, Alberto. (2012a). El derrumbe del modelo, Santiago de Chile: Lom.
- Mayol Miranda, Alberto. (2016). Autopsia: ¿de qué se murió la elite chilena? Santiago de Chile: Catalonia.
- Mayol Miranda, Alberto, Carla Azócar Rosencranz y Carlos Azócar Ortiz. (2013). El Chile profundo: modelos culturales de la desigualdad, Santiago de Chile: Liberalia.
- Mayol Miranda, Alberto y José Miguel Ahumada Fonfach. (2015). Economía política del fracaso: La falsa modernización del modelo neoliberal, Santiago de Chile: El Desconcierto.

- Mayol Miranda, Alberto (2019). Big Bang, estallido social 2019. Santiago de Chile: Catalonia.
- Sorokin, Pitirim. (1969). Sociedad, cultura y personalidad. Madrid: Aguilar.
- Steenvoorden, Eefje. (2015). A general discontent disentangled: a conceptual and empirical framework for societal uneas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4(1), 85–110.
- Waltz, Susan. (1982). Antidotes for a social malaise: alienation, efficacy, and participation in Tunisia. *Comparative Politics*, 14(2), 127–147.
- Weber, Max. (1987). Ensayos sobre sociología de la religión, Tomo I. Madrid: Taurus.
- Weber, Max. (2002). Economía y sociedad. Edición preparada por Johannes Wickelmann. Madrid: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Weber, Max. (2011). La ética protestante y el espíritu del capitalismo.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